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안녕하세요? 조나단 강야엘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초여름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희 가족은 십 수 년 만에 여러 여건 상,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은 작년에 시작된 새로운 종교법에 의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곳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이 번 단속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먼저 몇 개의 주요 교회 장소들은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모임 장소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제자들의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식년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선제적으로 대비시켜 지켜 주심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1 년 동안 5 명의 제자들이 순번제로 설교를 담당하고, 모든 리더십은 2 명의 1기 리더들(목사 안수 받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1 년 동안은 모든 신학교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양지해 드리고, 그동안 신학교 사역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년 저희는 모두 7개의 가정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개의 교회를 이미 개척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두 6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7월 초에 입국하여 지금은 안식년 정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을 충전하면서 박사과정 공부에 매진하고, 영적으로도 더 깊은 주님과 관계를 위해 초점을 맞추며 지낼 예정입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 부부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시어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명을 넉넉히 완수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롬!

**<기도제목>**

1. 안식년 정착을 위해
2. 현지 제자들과 교회의 안전과 금 년 목표(7개 교회 개척) 완수를 위해
3. 두 자녀의 원만한 학업을 위해
4.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